

일본 진출

- 일본: 객 3 주 1
- 키덜트: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시절 감성을 추구하는 성인 → 고가 형성
- DX(디지털 전환), GX(친환경 전환)
- **스크루플레이션**: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체감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

가. 시장 전망

GDP 성장률: 24년 0.3 → 25년 1.1% 상승 전망, 1/4분기 성장률: -0.2% (5.16)

- 임금 인상률이 둔화되더라도 실질 임금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개인 소비는 회복 기조를 유지할 전망
 - 실질 가처분 소득 안정으로 개인 소비의 완만한 회복 예상
 - 임금 상승, 인플레이션 억제,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산소득 증가가 소비를 뒷받침
- 설비 투자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(DX & GX)
- 임금 인상과 미 국물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거나, 엔저 안정화, 원유 가격 하락 영향으로 물가는 2% 목표 하회 전망
 - 25년 후반에는 소비자 물가 1%대 중반 둔화 예측
- **물가상승 = 일본의 잃어버린 30년(디플레이션)을 벗어났다는 의미**
 - 디플레이션 → 금리 0% → 벗어남(물가 상승) → 금리 인상 가능성 ↑

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

이시바 내각 출범, 여소야대 정국 속 국정 장악력 우려

- **여소야대**: 자민당(191석), 공명당(24석) 합계(215석)으로 과반수인 233석 확보 X, 야당은 모두 의석수 증가
- 자민당 정치 자금 문제로 지지율 하락 → 기시다 전 총리의 총재 선거 불출마 선언 → 자민당 신 총재 선거 → 역대 최다인 9명 입후보 → 내각 인선 발표 후 중의원 조기 해산 및 총선거 실시 → 중의원 선거 참패로 여소야대 정국을 맞아 이시바 총리를 재선출

이시바 내각 주요 정책이 일 경제, 사회, 한-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

취임전

- 경제: 통화 정책 정상화, 재정 건전화, 지방 균형 발전(**금리 인상**)
- 외교: 아-태 지역 집단 안보 구축(아시아판 NATO 창설을 통한 지역 안보체제 구축)
- 환경: 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(재생에너지, **원자력 발전 활용 가능성** 일부 언급)

취임후

- 금리 인상 신중론
 - 완화적 통화정책 언급, 연내 추가 금리 인상 불투명 → **엔화 약세 지속 전망**
- 금리 인상 → 통화정책 정상화, 재정지출 효율화 → 기초 재정 수지 흑자화 → 디플레이션 탈출 제시

- 경제/산업: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혁신, 제조업, 첨단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, 고용/투자 촉진
을 위한 생산 거점 국내 회귀 등 지원을 강조
 - 최저임금 평균 1500엔 인상과 남녀 임금 격차 해소
- 아시아판 NATO 창설 유보 입장 선회
 -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 확보 어려움
 - 동아시아 위협인식이나 안보 이해가 상이
- 미국 대선 결과의 향방 및 엔고 전환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**추가 금리 인상은 연말로 연기
될 것이라는 전망**
 - 실제: 25년 1월 금리 인상(24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2.8%로 높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)
 - 0.25(24.12) → 0.5(25.01)

이시바 내각 운영 전망

2차 이시바 내각 전망

- 파벌에 속하지 않은 자민당 소수파인 이시바 총리가 당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
- 일본 국민 인식은 여전히 비판적
- **소수여당**이 된 자민당이 예산안과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야하는 상황

이시바 내각 주요 정책

- 재정: 통화정책 정상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우선
 -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정책 정상화
 - 재정지출 효율화 추진 →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→ 디플레이션 탈출 제시(0.25 → 0.5)
- 경제/산업: DX, GX, 첨단/제조업 기술경쟁력 제고, 지방 균형 발전 강조
 -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기술혁신, 제조업, 첨단 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
 - 고용, 투자 촉진을 위한 생산거점 국내 회귀 등 지원을 강조
 - 최저임금 평균 1500엔 인상(현: 1055엔), 남녀임금 격차 해소
- 환경/에너지: 원자력발전 필요성 제시,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자급률 확대
- 대외 관계: 한일관계 악화 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

나. 역대급 엔저와 고물가가 소비에 영향 확대, 대응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

- 달러-엔 환율은 24년 상반기까지 지속적 상승 추세 → 일본 내 물가 상승과 소비 시장 위축에 영향을 끼침
- **슈퍼 엔저**상황 발생(수출유리, 수입 불리 → 에너지, 자원 수입에 불리)
- 트리플 레드가 확실시되자 재정 악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→ **미 국채 매도 확산**(신용등급 하락, 감세 정책, 경기 둔화 불확실성 ↑) → **미 국채 장기 금리 상승** → 미-일 금리차 확대 예상엔 매도, 달러 매수 → **엔저 심화 분위기 조성**
- 국채 수요 ↓ → 보상 심리로 국채 가격 ↑(10년물 국채 금리 4.5% 넘어섬)
- 국채 가격 ↑ = 미래 성장 기대가 부정적, 위축 될 것이라는 것
- 고물가를 넘는 개인 소득의 확대를 모토로 과감한 경제정책 추진
- **아베노믹스**: 임금 동결
- **현재**: 임금 인상(5% 상승하지만 현재 한국에는 못 미치는 상황)

- 춘투 시즌에 맞춰 기업 대상 큰 폭의 **임금 인상을 촉구**, 경영계도 이에 호응하여 33년만에 최대 임금 인상 실시
- (계획중)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한 정액 감세 시리, 고물가를 넘는 소득 증대를 실현하고 가계소비 진작을 기대

여전한 절약 지향 소비 추세, 소비심리 개선 기대

- **슈퍼엔저**로 인한 고물가가 임금인상률을 상회해 **실제임금이 실제로는 감소한 체감**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
- 소비자태도지수: 50이 안됨 → 절약
- 소비자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세와 실질 소비 지출이 서로 비례해 움직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(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현상이라는 분석)
- 물가상승 > 월급상승 → 절약

다. 30년만의 기록적인 임금상승률, 인재 확보의 새로운 과제

- 24년 춘계 노사협상(춘투) 최종결과 5.33% 임금 상승 기록
-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**일손 부족 현상**이 심화, 정부 및 기업은 인재 유치를 위해 **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단행**
- 일본은 기업별노조 → 대기업은 임금 상승 견인 But 중소기업은 임금 상승 어려움
- 대기업: 철강, 정보통신 분야가 평균 10%를 웃도는 임금 상승률을 기록하며 높은 **임금 상승**을 견인
- 중소기업: 5%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한 분야는 금융이 유일
- 24년 임금 인상 시행 기업
 - 대기업: 94.1%
 - 중소: 84.2%(전년대비 감소)
- 노동인구 부족으로 구직자가 기업을 선택하는 시장으로 서서히 전환 추세(더 나은 조건을 가진 대기업으로 이직 → 평균 임금 상승 견인)

2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, 근로자의 취업 조정으로 인력 부족을 야기할 우려

- 25년 최저임금: 1055엔
- 최저임금 상승 → **연수입의 벽**을 넘어선 근로자들일 추가 취업 조정을 실시할 가능성 ↑ → 인력 부족에 박차를 가할 우려
- **연수입의 벽**: 주민세, 소득세 등의 세금이나 사회보험료가 들지 않게 하기 위해 **근로자가 노동시간을 억제하는 취업조정을 실시하는 것**

라. 설비 투자 증가와 국내 생산 거점 강화

여전한 미-중 대립으로 일 국내 생산거점 강화 및 해외기업 일본 진출 확대

- 대규모 반도체 지원 보조금 →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본 국내 공급망 강화 중
- TSMC의 구마모토현 신공장 건설을 계기로 소니, 토요타 및 소재 메이커인 후지필름 등의 구마모토현 공장 및 설비 투자 확대
- But 긍정적이지는 않음
- 일 정부/기업의 국내 중심 공급망 재편은 한국기업에도 기회가 될 수 있음

대표 기업(중요)

- **키옥시아**: 옛 토시바메모리(현 SK하이닉스 지분 15%, 자본구조: 한미일 합작투자)

- **라피더스**: 22년 소니, 도요타, 키옥시아, NTT, NEC, 소프트뱅크, 미쓰비시 UFJ은행의 8개 대기업이 출자한 회사

마. 2025년 문제: 고령화와 인력 부족의 심화

의료, 간병 서비스의 DX수요 급증

- 베이비붐세대(단카이, 많음) 고령화 → 인력 부족 문제 심화 → DX(디지털전환) 수요 급증
- 25년부터 60년의 실질 성장률별 시나리오에 따른 GDP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을 예측, 고도의료 이용 상황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, '60년 의료/간병비는 명목 GDP의 13.3%에 도달, 이는 '19년 대비 60% 증가한 수치
- 간병업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만성 인력 부족 상태 + 이직률 높음
- **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인 수용** + 일본인 종사자 확보도 노력 중

바. 일본의 GX, 실행 단계로 진입

정부 지원 정책, 투자에 힘입어 일본 GX는 '실행' 단계로 진입

- Green Transformation: 저탄소, 탈탄소 전환(**전 기시다정권 새로운 자본주의**)
- DX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에너지 확보 중요성 강조
- '50년(중국은 60년)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탈탄소가 어려운(철강, 화학)의 대응이 중요, '24년 5월 수소, CCS 도입 관련 법률 마련

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 기업의 탈탄소 공급망 구축 본격화

- 일본의 전체 사업 수익에서 GX 관련 수익의 비율은 **약 10%, 독일에 이은 세계 2위 수준**으로 하이브리드 차, 에너지 효율이 높은 산업용 제품의 수익이 큼

일본의 DX

- 스가 전 총리의 '디지털 개혁'을 계승, 발전, 디지털 사회 실현을 핵심 정책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하락 및 과제 선진국으로서의 위기의식 고조
- 23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64개국 중 32위(18년 부터 순위 하락, 한국 6위, 중국 19위)
- 24년 디지털 경쟁력 순위 68개국 중 31위(한국 6위)

사. 2025년 절벽 DX 추진 실패 시 일본 경제 위험

1. 유지 보수 비용 증가 & 기업 기밀 유출
 - DX를 통한 새로운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,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존 **노후화 시스템 유지, 보수하는 비용이 증가**
2. 표준화된 IT 인력 확보 어려움 및 인재 육성 비용 상승
 - 신규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 간 개발 언어 불일치로 노후화된 시스템에 대응하는 **인력부족**에 직면 가능
3. 시스템 고립화로 인한 산업 경쟁력 감소
 - 각 기업 시스템이 고립화되고 일본 기업 간의 기술 교류 뿐만 아니라 세계 기업과 유기적인 교류가 불가능해짐

대응

- 정부: 국제적 신뢰성 있는 표준화 시스템 구축
- 기업: 데이터 내재화 추진

아. 자동차를 잇는 일본의 2대 수출산업 인바운드 소비

8조엔을 눈앞에 둔 인바운드 소비, 일본 대표 산업으로 성장

- 방일 외국인수 4개월 연속 최고치 경신
- 10년만에 5배로 성장하며 일본 경제를 지지하는 존재감을 나타냄
- 인바운드 확대는 코로나로 침체된 **일본 소비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** But 내국인 생활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짐
- 서비스업 인력 부족 문제 대두, 정부는 **오버투어리즘** 대책 수립중

숙박, 음식 등 체험형 소비 비율 증가, 일 전국으로 인바운드 효과 확산 노력

- 체험소비(**코토소비**)가 증가: 숙박, 음식, 교통 등 체험형 소비 비율은 늘지만, 단순 쇼핑은 감소
- 코토소비 관심을 활용해 '지방의 고부가가치 관광지'로 인바운드 효과를 일본 전국에 확대하고자 함
- **코토소비**: "모노(물건)"을 소비하기 보다는 "코토(시간)"을 소비하는 것(제품 < 체험)
- **토키소비**: 체험소비 → **코토소비** → 토키소비(공유, 교류, 참여, 공헌)
- 토키소비 특징: 비재현성, 한정성, 참가성, 공헌성

비즈니스 환경 분석

가. 정치환경

이시바 총리로 교체 후 중의원 선거 참패로 여소야대 구도를 맞은 자민당 정권

- 정치자금 스캔들 → 낮은 지지율(기시다 총리) → 총재 선거 불출마(총리직 퇴임)
- 이시바가 총재로 선출
-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 → 465석 중 연립여당 합산 215석 확보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여당 세력 확보 (여소야대)

이시바 총리 주요 정책 방향

- 금리인상, 증세
- 지방창생, 출산율 제고, 수도권 집중 해소
- 디플레이션 완전 탈출 목표 → 물가 상승 이상의 임금 인상 달성을 위해 1500엔 달성을 목표로 제시

나. 경제환경

25년 실질 GDP 성장률은 24년 대비 높은 1.1% 전망, 실질임금 상승세 유지에 따른 개인 소비 회복, 설비 투자 증가세 지속 영향

- 생산: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산업생산지수 하락 → 단기 경기 침체 가능성 상승
- 소비: 임금 인상 및 관광객 증가 → 개인 소비에 긍정적 신호(일본은행: 완만한 증가 기조로 상향 조정)
 - 지속되는 엔저현상 → 물가상승압력 강함 → 개인소비 악화요인으로 지목
- 설비투자: 3년 연속 증가, 디지털(DX), 탈탄소(GX) 관련 투자 지속 예상

- 물가: 인건비 상승분 가격 전가로 인한 서비스 물가 상승, 엔화 가치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에 완화가 상쇄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
- 환율: 일-미 금리차 감소로 인한 달러약세, 엔화강세 완만한 진행 전망
- 고용: 생산인구 감소 → 기업들 구인난 심화 & 고물가 → 구직자의 이직/겸업 수요는 증가 추세